



타임캡슐

성신고 1-1 한 경

그날, 그 시간, 시간이 흐른 한경에게

안녕? 가을바람 문을 열고, 쓸쓸함을 적적히 느끼고 있니? 이곳의 지금은 밤도 깊어지고, 속삭임도 깊어지고 있어. 편지라는 단어의 무게 때문일까. 연필만 꼭 쥐고서 쓴웃음만 지어. 아직은 이런 적적함마저 좋은 나야. 사실 그곳의 나는 어떤지, 그곳의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꿈과 같이 흐르고 있는지 당장 묻고 싶지만, 그건 내가 나를 미워하는 행동이니까 물어둘게.

글쎄... 내가 굳이 묻고자 할 건 하나야.

“경아, 너는 아직도 세상을 죽도록 혐오하니?”

지금의 나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몇 개고, 약 봉투가 대여섯 개가 넘어가는 데도, 대개 그런 티가 나질 않아. 길을 걸을 때에는 내 공상에 묻혀 작아지는 것만 빼고 말이야. 나는 자주, 길을 걸을 때면 이상한 공상에 빠지고는 했는데, 그것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일쑤였어. 아니, 보통 그런 식이지. ‘사회적 모순을 사랑하라느니,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라느니 같은 이해 안 되는 말들을 끄적이 혐오하면서도, 사랑해’ 같은 문장들을 떠올리고 자책하는 거

야.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들을 정의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과학이라는 구조물에 사유하는 것이었던 거지. 그토록 모순적이었어. 사실 그 공상들은 내가 우주 속에서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다다르게 했는데, 그것이 작아진 나를 키울 수 있던 건 아니었어. 그것 또한 공상일 뿐이었으니까.

우리 언니는 아직 지구가 크다고 생각해. 우주라는 실에다가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끼워 알록달록한 팔찌를 만들면 지구는 곧 장식품일 뿐인데 말이야. 우리는 그 장식품에 묻은 얼룩조차 아니라는 거지.

웃기지 않아? 이렇게 생각만으로 내가 작아지고, 무언가를 쉽게 보고,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죽도록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 달라는 거야. ‘그땐 그랬다’라지만 이 생각만큼은 마음속 작은 응어리에서조차 품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글쎄, 이 생각들은 단단한 돌이 될까? 그저 흘러가는 물이 될까? 무엇이든 지금의 생각보다는 더 멋진 생각들로 피어나 마음속 가을이 되어 있겠지? 아직은 그런 공상들이 내 머리를 어지럽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꿈을 꿀 거거든. 이 문장은 그저 공상이 되지 않으리라 확신해. 모순은 사랑이 되고, 과학은 미래가 되며 그 작은 얼룩은 지워지지 않을 거야. 사실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자책도 많이 하겠지만, 길을 걸을 때만큼은 당당히 걸으려고.

이제 물을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 나는 혐오를 사랑으로 바꾸고, 꿈을 피우는 방법을 깨달았는데, 그곳의 나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사랑하고 있겠지?

공상들의 잔여가 남아 내 바람들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것마저 사랑하길. 슬픈 공상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길. 이 편지를 읽고 멋진 경험이었다며 숨 쉬어주길.

가족들도, 친구들도, 연인도, 세상도 그리고 나까지, 미워하는 날들보다 사랑하는 날들이 더 많아지길.

편지라는 이름하에 내 진심 꺾꺾 눌러 담았으니, 답장도 꼭 남겨줘.

음... 사랑해. 안녕!!

2025년 10월 19일(일)

-이날, 이 시간, 시간이 흐를 한경 올림-

